

5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이념, 허정숙과 이화림

장영은

- 허정숙과 이화림의 도전과 성취, 좌절과 극복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해 이동과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여성 혁명가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겪은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 사회주의 여성 지식인 허정숙과 이화림의 이념과 용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혁명가 허정숙의 성장

- 아버지 허헌
- 허정숙의 학창 시절
- 조선여성동우회와 단발식

02.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의 활동

- 동아일보와 잡지 《신여성》
- 미국 체류와 여행기
- 허정숙의 근우회 활동

03. 허정숙의 여성해방론

- 조선여성의 해방
- 조선의 콜론타이
- 새로운 연애관

04. 허정숙의 정치 활동과 유서

- 해방과 귀국
- 사망과 유서

05. 이화림의 독립운동

- 이화림의 유년 시절
- 상하이의 한인애국단
- 광저우의 중산대학

06. 이화림의 혁명 활동

- 난징의 조선민족혁명당
- 조선의용대원의 재정비 교육
- 의과대학 진학

07. 이화림과 중국공산당

- 의과대학 졸업
- 중앙당교와 간부 활동
- 문화대혁명과 퇴직

1차시

혁명이 허정숙의 성장

학습목차

학습목표

- 여성 혁명가 허정숙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아버지 허헌
- 허정숙의 학창 시절
- 조선여성동우회와 단발식

아버지 허헌

허정숙의 성장과정

- 1902년 함경북도 명천 출생
(1903년생, 1908년생 등의 기록도 있음)



허정숙

허정숙의 성장과정

- 허정숙의 아버지 허헌(1885-1951)
 -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 일본 메이지대학 졸업
 - 대한제국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허헌

허정숙의 성장과정

- 어린 시절 아버지와 그 동료들을 지켜보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허정숙

허정숙의 학창 시절

1920년,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 일본 교토(京都)의 헤이안(平安) 고등여학교 및
이화학당 대학과 예과에서 수학



서울 배화여자고보

1921년 4월, 조선여자교육회에서 활동

- 배화여고보 시절 스승 차미리사(1879-1955)의 영향



차미리사

전국순회강연단 조직

- 1921년 조선여자교육회 전국순회강연단 조직
- 허정숙의 강연
- 조혼의 폐해, 여성 교육과 여성 해방의 중요성 강조

허정숙의 학교생활

- 1922년 3월부터 약6개월간 중국 상하이(上海)에 체류
 - 상하이 외국어학교에 등록
- 아버지의 소개
 - 독립운동가 이동휘의 집에서 지냄
 - 사회주의자들과의 만남

허정숙의 학교생활

- 1922년 9월, 일본 고베(神戸) 신학교에 입학
 - 헤겔을 비롯해 다양한 사상서적 탐독
- 건강 문제로 귀국

귀국 후

- 귀국 후 신흥청년동맹 가입
- 1924년 5월
 - 한국 최초의 여성 사회주의 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 결성

조선여성동우회와 단발식

유년 시절에 대한 회고

- 1924년 5월
 - 조선여성동우회 출범, 창립총회 개최



조선여성동우회 간부들

조선여성동우회의 강령과 선언문

■ 강령

- 본회는 사회진화법칙에 의하여 신사회의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입(立)할 일군의 양성과 훈련을 기(期)함
- 본회는 조선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결을 기(期)함

조선여성동우회의 강령과 선언문

■ 선언

-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권리 없는 의무만을 지켜오던 여성대중도 인류역사의 발달을 따라 어느 때까지든지 그와 같은 굴욕과 학대만을 감수하고 있을 수는 도저히 없게 되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으며 권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다. (...)
아! 우리도 살아야 하겠다. 우리도 잃었던 온갖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하겠다.

논설

「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

- “오늘날 사회의 우리 부인은 경제상의 독립을 얻지 못한 까닭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남자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그들의 놀잇감이 되었으며 기계가 되어 버렸다.”

《동아일보》 1924년 11월 3일자

1925년 8월 ‘단발’ 감행

- 조선여성동우회 회원 허정숙, 주세죽, 김조이의 동반 단발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발표

- “이제까지의 여성의 미! 이것은 부자유스러운 가운데에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여성의 순수한 미의 가치가 아닌 인간을 모욕하는 일종의 노예적 정신 아래에서 일개 희롱물의 값어치 밖에 갖지 못하는 그런 미였습니다.

(...)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인정되던 결발 그것은 여성 자신의 인간적 유린이요, 인격상 모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발표

- “따라서 인습이나 습관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결발은 여성이 상품이요 비인간의 대우를 받던 때의 한낱 상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발, 즉 과거의 여성미에 대한 사상을 근본으로부터 부인하고 반대합니다.”

《신여성》 1925년 10월호

1925년 1월, 경성여자청년동맹 결성



경성여자청년동맹

1925년, 〈3·8 국제부인의 날〉 기념식 개최



3·8 국제부인의 날

학습정리

- 허정숙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함
- 귀국 후 조선 여성의 삶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단발을 주장함
- 조선여성동우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을 조직하고 활동하며 적극적인 사회 실천을 이어감

다음 차시에서는

-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 허정숙의 활동

[출처01]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eo_Jong-suk.png

[출처02]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D%97%88%ED%97%8C%EC%84%A0%EC%83%9D.jpg>

[출처3]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국가등록문화재 제672,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생활관

[출처04]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EB%AF%B8%EA%B5%AD_%EC%9C%A0%ED%95%99%EA%B8%B0_%EC%B0%A8%EB%AF%B8%EB%A6%AC%EC%82%AC.jpg

[출처05] 《조선일보》 1925년 12월 21일자 3면

[출처06] 《조선일보》 1925년 12월 19일자 3면

[출처07] 《동아일보》 1926년 1월 14일자 7면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